

■ 괴운(槐雲) 칼럼



인생육피(人生六避)와 노인의 육법전서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최근 인터넷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인생 6피>와 <노인의 6법전서>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인생육피(人生六避)>이다. 우리 인생에는 정답은 없지만 일신을 잘 보전하여 천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 가지 오답만은 피해야 한다고 한다.

첫째는 과피(過避)이다. 지나침을 피해야 한다. 일이든 사랑이든 침표가 없이 너무 지나치면 건강도 관계도 파탄나기 쉽다. 내 삶에 적당한 침표를 찍어줄 때 몸도 관계도 건강해진다. 둘째는 처피(處避)이다. 누가 초대할 해도 내가 길 자리가 아니면 가지 않는다. 셋째는 만피(蠻避)이다. 자존심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말고 만용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넷째는 수피(受避)이다. 받아서는 안 되는 재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뇌물이다. 다섯째는 교피(交避)이다. 내 삶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이다. 교피를 실천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여섯째는 갑피(甲避)이다. 세상을 우습게 보고 갑질을 하다 세상을 모두 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이 갑질로 비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음은 <노인의 육법전서(六法全書)>이다. 노인들이 지켜야 할 21가지 바이블이다. (1)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찮아도 많이 걷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2) 생활의 외로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외로움은 노인에게는 공통적인 운명이자 최대의 고통이다. 매일 함께 놀아줄 말동무를 항상 곁에 둘 수가 없다. 목표를 설정해서 노후를 즐겁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3)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거짓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됐어”라고 사양하면 젊은 세대들은 주지 않는다. “나도 먹고 싶은데 하나씩 돌아가나?”라고 말해야 얻어먹을 수도 있다. (4) 같은 연배끼리 사귀는 것이 노후를 충실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속담에 “초록은 동색”이라 했듯이 노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대가 되어줄 사람은 노인뿐이다. (5) 다섯째는 즐거움을 얻고 싶다면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무

엇인가를 얻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6)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어든다. 아무도 없어도 어느 날 낯선 동네를 혼자서 산책할 수 있는 고독에 강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7) 돈이면 다라는 생각은 천박한 생각이다. 돈은 노후에 중요하지만, 돈이면 다라는 생각은 세상을 너무 황량하고 냉정하게 만든다. (8) 어떠한 일에도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훈훈한 노후를 위해서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9) 새로운 기계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10) 몸가짐과 차림새를 단정히 해야 한다.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자제가 흐트러진다.

(11) 매일 적당한 운동을 일과로 해야 한다. 이는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12) 여행은 많이 할수록 좋다. 여행지에서 죽어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필의 화장 습관만 휴대하고 다니면 된다. (13) 관혼상제, 병문안 등은 일정 시기부터 결례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14) 나는 재미있는 인생을 보냈으므로 언제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소부터 심리적 결제를 해 둔다. (15) 유언장 등은 편안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 둔다. 사후에 유산 등으로 남은 가족들이 다투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 (16) 죽음은 두렵지만 죽는 것은 한 번뿐이다. 노인의 병은 잘 낫지 않으니, 병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17)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야 한다. 자연스럽게 주어질 늙음의 모습에 저항할 필요는 없다. (18) 혈육 이외에 끝까지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 죽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20) 행복한 일생도, 불행한 일생도 일장춘몽이다. (21) 노년의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과 화해이다. “명성을 쌓는 것에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려도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5분도 안 걸린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 기업가 워렌버핏의 말)

우리 안동 권문들도 <인생 육피>와 <노년의 6법전서>를 잘 숙지하여 보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만끽(滿喫)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수웅 대중회 부회장(작은공파 38세)

통일역사관의 기본 입장

3) 북귀역사-2
이와같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재창조역사인 동시에 북귀역사이어서 창조의 법칙과 북귀의 법칙이 전 인류를 꿰뚫고 작용하여 이 사실을 밝힌 것이 통일원리의 위대한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의 법칙을 확정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비과학이 되어 오던 신학적 사관을 엄연한 사회과학의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 사관의 출현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역사관 분야에서 무인지경으로 달리듯이 횡포를 부리던 유물론 사관의 기세를 꺾고 ‘사회과학’ 운운하는 그 주장의 사이비성을 폭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의 시원과 방향과 목표

역사의 시원이 일원이나, 다원이나, 역사의 방향이 결정론이나 비결정론이나 하는 논쟁에 관하여 통일사관의 입장을 밝히려는 것이다. 일원적 시조론, 인류 시조에 관하여 일원론 입장이다. 창조설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다원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에서부터의 시작’ 즉 단일 시발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방향과 목표는 재창조역사이며 북귀역사이기 때문에, 직행이나 우회나, 단축이나 연장이나는 전적으로 인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즉 비결정론이고, 과정이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책임 분담론이라고 한다.

역사의 발전 및 북귀의 제법칙

역사발전의 과정은 일정한 법칙의 지배를 받아 왔다. 그것이 곧 일련의 창조법칙과 북

귀법칙이다. 공산주의가 그 과학성을 자랑하는 유물사관의 ‘법칙’은 사실은 참된 법칙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위장법칙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하나도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관적인 사이비 법칙이었던 것이다.

창조의 법칙은 상대성의 법칙 역사상 어떤 형태의 법칙이든지 어떠한 종류의 발전이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반드시 능동적인 주체와 피동적인 대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주체와 대상은 일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게 된다. 이 작용은 상호적이라면 거기에서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공산주의가 대립물의 통일과 분쟁에 의하여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급투쟁을 합리화시키려는 책략인 것이다. (상극의 법칙; 수수작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체끼리 서로 반발한다는 이 법칙은 대립, 투쟁으로 나타난다)

중심주관의 법칙

인간은 만물(자연환경)의 주관주로서 지음받았다. 마찬가지로 지도적 인물은 사회환경에 대하여서도 주관의 위치에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원리적 견해이다. 여기에 있어서 주관자는 주체요 환경은 대상이다. 주체는 대상 없이 존재하지 못하며 대상은 주체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자 중 중요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일정한 환경을 조성시켜 놓고 반드시 그 환경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심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환경을 주관하게 한다.

이것을 ‘중심주관의 법칙’이라 한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중심인물보다



는 환경조성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환경을 혁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혁명적 인물들을 양성한다. 공산주의자의 이와같이 말과 실천이 맞지만 이것을 인정하면(중심인물을 중요시하면) 사상적으로 유물론의 오류를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로는 ‘중심주관의 법칙’을 시인하는 것 같은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개정판 편찬위원회



운곡서원지(雲谷書院誌) 개정판(改訂版) 편찬위원회(編纂委員會) 첫 회의가 지난달 24일 경주 운곡서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첫 위원회엔 권갑현(權甲鉉) 자문위원장과 권오신(權五信) 발행인겸 서원위원장, 권혁무(權赫武) 권혁광(權赫光) 고문, 권혁근(權赫根) 권용호(權容浩) 감사, 권진택(權鎭宅) 유사, 권한욱(權漢旭) 권상택(權相澤) 권택관(權宅官) 위원이 참석, 2011년 4월에 발간된 운곡서원지

(雲谷書院誌)의 편찬 내용을 원안대로 살리고 초판 발간 이후에 발생된 사실들을 보완, 편집하기로 의결을 모았다. 또 1784년(정조 8년)부터 1968년까지 서원 역사가 실린 고양록(考往錄)은 주요 역사가 실린 고귀한 서지(書誌)인 만큼 부록(附錄)으로 분리 편집(編輯)하고 전체 컬러로 제작해서 한글세대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제작형식이 집중 논의됐다. 권오신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영주중친회 제34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현판식 및 개소식 개최

영주중친회에서는 6월 22일 영주중친회관에서 2025년 제34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현판식 및 개소식을 개최했다. 권영창 대중회장을 비롯하여 권중수 영주중

친회장 등 임원진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권오현 대회장과 권오규 준비위원장, 권

용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각 지역 청장년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자고 다짐했다. 권중수 영주중친회장



권오현 대회장



준비위원회 현판식

서울지역중친회 월례회 연꽃 나들이

회원 여러분!

서울지역중친회 7월 월례회는 ‘연꽃 나들이’입니다. 수련이 보기 좋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12시

♣ 집합장소 : 중앙선 국수역 12시 국수역에서 승합차로 이동(10분 거리)

♣ 방 문 지 : 남한강 수련지

♣ 식 당 : 예마당(산더미 불고기)

◆ 연락처 :

- 회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무 권지은 010-5413-0287

2024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중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39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39차 정기산행에 시간 엄수 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7월 21일 10시 (시간엄수)

♣ 집합장소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 산 행 지 : 송추계곡, 물놀이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 010-2240-4242

2024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